

01.

1. 산업 전체 거래동향 개요

Top 30 베스트 셀러 모델

연식별/주행거리별
중고차 거래동향

연식별 수출 동향

연식별 폐차 동향

경매 시장 동향

요약 및 시사점

1. 산업 전체 거래동향 개요

2025년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은 전반적으로 회복과 구조 변화가 동시에 나타난 해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 신차 거래는 169만 대로 전년 대비 2.98% 증가하면서 2024년의 감소 국면에서 벗어났고, 중고차 거래는 392만 대로 소폭 증가(+0.42%)하였다. 수출은 72만 대로 전년 대비 44.3% 급증해, 2025년 전체 거래 구조 변화의 핵심 변수로 작용했다. 폐차는 76만 대로 5.0% 감소했다.

연도별 흐름을 보면, 2023년에는 수출과 폐차가 동시에 증가하며 시장 변동성이 컸고, 2024년에는 신차 감소와 수출 정체로 조정 국면이 나타났다. 2025년은 이와 달리 신차 회복, 수출 급증, 폐차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국내 차량 스톡이 유지되거나 일부 확장되는 구조로 전환된 해라고 볼 수 있다.

<표 1> 연도별 거래대수

연도	신차	중고차	수출	폐차
2022	1,697,135	3,802,459	338,837	766,521
2023	1,764,275 3.96%	3,838,069 0.94%	499,893 47.53%	818,485 6.78%
2024	1,650,648 -6.44%	3,899,581 1.60%	500,139 0.05%	801,997 -2.01%
2025	1,699,781 2.98%	3,915,916 0.42%	721,441 44.25%	761,560 -5.04%

<표 2> 2025년 거래 상세 (국산, 수입, 전기차 부문)

	2025년 전체	국산	수입	EV	HEV
신차	1,699,781	1,362,863	336,918	228,142	592,049
전년대비%	2.98	0.56	14.06	54.38	15.54
중고차	3,915,916	3,239,168	676,748	114,838	262,906
전년대비%	0.42	-0.33	4.16	54.76	37.95
수출	721,441	563,610	157,831	2,657	57,507
전년대비%	44.25	36.40	81.52	-38.61	144.29
폐차	761,560	701,661	59,899	3,877	8,521
전년대비%	-5.04	-5.81	5.03	42.01	29.99

<표 2>는 2025년 자동차 거래를 국산차와 수입차, 그리고 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HEV) 기준으로 분해해 구성 비중을 보여준다. 신차 시장에서는 전기차의 회복세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수입 전기차 판매 호조에 기인한다. 국산차 판매가 0.56%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수입차 판매는 14% 이상 증가하며 전체 신차 시장 확대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 중고차 시장 역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한 수입차 강세에 힘입어, 국산차 거래가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0.42% 증가했다.

한편 2025년 수출 증가는 단순한 물량 회복을 넘어 국내 자동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 하이브리드 차량 수출은 전년 대비 144% 급증한 반면, 전기차 수출은 절대 규모가 매우 작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수출 확대는 전기차 중심이 아니라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한 믹스 변화의 결과로 해석된다<표 2>. 이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조정 국면에 진입한 흐름과도 맞물린다. 폐차는 전년 대비 5% 감소했는데, 이는 차량 보유기간의 연장과 일부 물량이 수출용으로 전환된 영향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표 3> 2025년, 부문별 Top 30 모델

순위	국산신차		수입신차		국산중고차		수입중고차	
	모델	대수	모델	대수	모델	대수	모델	대수
1	아반떼 (ICE)	61614	Model Y RWD (EV)	37929	그랜저 (ICE)	176413	QM3 (ICE)	13974
2	싼타페 (HEV)	43720	쏘나타(SONATA) (ICE)	16711	아반떼 (ICE)	160677	BMW 520d (ICE)	11504
3	G80 (ICE)	40425	Mercedes-Benz E 200 (HEV)	15588	쏘나타 (ICE)	132547	E300 (ICE)	8104
4	그랜저 (HEV)	38296	BMW 520i (HEV)	14580	포터II (ICE)	122441	Model 3 Long Range (EV)	6805
5	캘리세이드 (HEV)	36904	Model Y Long Range (EV)	12475	싼타페 (ICE)	94342	BMW 320d (ICE)	6770
6	클레오스 (HEV)	35823	Mercedes-Benz E 300 4MATIC (HEV)	9644	K5 (ICE)	87878	렉서스 ES300h (HEV)	6664
7	GV70 (ICE)	33671	렉서스 ES300h (HEV)	6851	G80 (ICE)	71397	Mercedes-Benz E250 (ICE)	5899
8	포터II (ICE)	33078	Model 3 RWD (EV)	6812	그랜드 스타렉스 (ICE)	67769	BMW 320i (ICE)	5800
9	그랜저 (ICE)	32743	BMW X3 20 xDrive (HEV)	5540	투싼 (ICE)	64134	BMW 520i (ICE)	5126
10	GV80 (ICE)	30963	BMW 530i xDrive (HEV)	5532	스파크 1.0 DOHC (ICE)	63174	E300 4Matic (ICE)	5110
11	투싼 (ICE)	29424	볼보 XC60B5 AWD (HEV)	4848	K3 (ICE)	57346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ICE)	4712
12	K5 (ICE)	28494	BMW 320i (HEV)	4814	K7 (ICE)	54500	BMW 520d xDrive (ICE)	4568
13	쏘나타 (ICE)	27705	Benz GLC 300 4MATIC Coupe (HEV)	3650	봉고III 1톤 (ICE)	52605	E220 d (ICE)	4415
14	투싼 하이브리드 (HEV)	25305	BMW X7 xDrive40i (HEV)	3435	스파크 1.0 (ICE)	47897	BMW 528i (ICE)	4377
15	스타리아 (ICE)	23323	BMW X4 xDrive20i (ICE)	3369	캘리세이드 (ICE)	46394	MINI Cooper (ICE)	4246
16	EV3 (EV)	21257	BYD ATTO3 (EV)	3128	QM6 (ICE)	37068	BMW 530i (ICE)	4000
17	코나 (ICE)	20662	Mercedes-Benz GLE 450 4MATIC (HEV)	3032	포터 네점담차 (ICE)	34236	Mercedes-Benz E350 4MATIC (HEV)	3641
18	K8 (HEV)	17350	BMW X5 xDrive40i (HEV)	3030	봉고III 플러스네점차 (ICE)	31676	Explorer 2.3 AWD (ICE)	3576
19	싼타페 (ICE)	14995	Mercedes-Benz GLC300 4MATIC (HEV)	3029	제네시스 (ICE)	30198	CHEVROLET COLORADO AWD (ICE)	3480
20	아반떼 (HEV)	14288	BMW 740i xDrive (HEV)	3025	그랜저 (HEV)	29857	BMW 118d (ICE)	3346
21	아이오닉5 (EV)	14001	렉서스 NX350h (HEV)	3004	SM5 (ICE)	29759	Model Y Long Range (EV)	3302
22	포터 하이네점담차 (ICE)	12930	볼보 XC40B4 AWD (HEV)	2849	SM3 (ICE)	29745	BMW 530i xDrive (ICE)	3082
23	트렉스 1.2 티보 (ICE)	12916	BMW X6 xDrive40i M Sport (HEV)	2766	GV80 (ICE)	28361	A6 40 TDI (ICE)	3039
24	캘리세이드 (ICE)	12385	BYD SEALION 7 (EV)	2663	SM6 (ICE)	27872	MINI Cooper five-door (ICE)	2969
25	봉고III 1톤 (ICE)	12171	Mercedes-Benz C 200 (HEV)	2575	캐스퍼 (ICE)	25533	A6 45 TFSI quattro (ICE)	2804
26	넥뉴 (ICE)	11724	Q4 45 e-tron (EV)	2472	코나 (ICE)	21254	MINI Cooper Clubman (ICE)	2525
27	봉고III 하이네점차 (ICE)	11401	Explorer 2.3L AWD (ICE)	2457	트렉스 1.4 (ICE)	20615	BMW X4 xDrive20i (ICE)	2516
28	K8 (ICE)	10842	토요타 CAMRY (HEV)	2319	K9 (ICE)	18849	CHEVROLET BOLT EV (EV)	2473
29	캘리세이드 (ICE)	10560	BMW X1 xDrive20i (ICE)	2114	GV70 (ICE)	18740	Model Y RWD (EV)	2469
30	레이 EV (EV)	9605	Model 3 Long Range (EV)	1809	G90 (ICE)	17025	Tiguan 2.0 TDI (ICE)	2449

02.

- ▶ 산업 전체 거래동향 개요
- 2.Top 30 베스트 셀러 모델
 - 연식별/주행거리별 중고차 거래동향
 - 연식별 수출 동향
 - 연식별 폐차 동향
 - 경매 시장 동향
 - 요약 및 시사점

2.Top 30 베스트 셀러 모델

<표 3>은 2025년 기준 국산 신차, 수입 신차, 국산 중고차, 수입 중고차의 Top 30 모델을 정리한 것이다. 국산 신차 시장에서는 여전히 내연기관차가 강세를 보이며, Top 10 가운데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하이브리드 모델 4종이 10위권에 진입하면서 점진적인 파워트레인 전환 흐름도 함께 관찰된다. 반면 수입 신차의 경우 Top 10 전 모델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국산 신차 Top 10에는 전기차 모델이 단 한 대도 포함되지 않은 반면, 수입 신차에서는 순수 전기차가 3개나 포함되어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내연기관차는 Top 20 기준으로 BMW X4가 유일하게 15위에 랭크되었다. 이러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부문에서의 수입차 초강세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전략적으로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한편 수입차로 분류된 쏘나타(내연기관차, ICE)는 중국 베이징현대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된 LPG 모델이다. 국토교통부의 공식 분류 기준에 따라 수입차로 집계되었으며, 본 분석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다만 수입차 시장의 일반적인 흐름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심층 분석에서는 해당 모델을 제외할 예정이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여전히 내연기관차가 우세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산 중고차의 경우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20위에 오르며, 하이브리드 모델로는 유일하게 Top 30에 포함되었다. 수입 중고차 역시 내연기관차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델 각각 1종씩이 Top 10에 진입하는 성과를 보였다(Model 3 Long Range, 렉서스 E300h). 특히 Model 3 Long Range는 순수 전기차임에도 수입 중고차 전체 4위에 랭크되며, 수입 신차뿐 아니라 수입 중고차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는 2025년 지역별 국산 신차 판매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판매 비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소비 선호와 시장 특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수도권은 전 차종에서 30% 이상의 판매 비중을 기록하며 최대 수요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전국 판매의 약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내연기관 모델인 트랙스 1.2 터보와 봉고III 하이내장차 역시 각각 50% 안팎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영남지역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싼타페, 투싼)과 전기차(아이오닉)가 각각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비교적 고른 친환경차 수요를 보여주었다. 충청과 호남 지역은 전반적으로 내연기관차가 우세한 가운데, 충청에서는 레이 전기차가, 호남에서는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지역별 차별화된 선택이 관찰된다. 제주도의 경우 G80, GV70, 스타리아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리스 및 렌터카 업체가 제주도를 차량 사용 본거지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강원도에서는 베뉴 내연기관차가 5.7%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특정 모델이 뚜렷한 우위를 보인다고 해석하기에는 제한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표 4> 국산 신차 Top 30 지역별 판매비중

순위	모델	전국 대수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강원	제주
1	아반떼 (ICE)	61614	37.7	25.4	10.6	17.3	2.7	6.3
2	싼타페 (HEV)	43720	39.0	31.3	9.3	10.0	1.9	8.6
3	G80 (ICE)	40425	37.4	27.2	8.5	12.2	1.7	12.9
4	그랜저 (HEV)	38296	38.3	25.5	10.5	16.8	1.9	7.0
5	펠리세이드 (HEV)	36904	43.0	26.4	9.7	10.4	2.1	8.3
6	클레오스 (HEV)	35823	49.7	25.0	11.7	8.0	2.8	2.8
7	GV70 (ICE)	33671	43.6	25.7	8.9	7.4	2.1	12.3
8	포터II (ICE)	33078	43.4	26.5	11.5	10.4	3.1	5.2
9	그랜저 (ICE)	32743	38.3	27.4	10.5	13.3	2.1	8.4
10	GV80 (ICE)	30963	39.0	27.1	8.4	9.3	1.8	14.5
11	투싼 (ICE)	29424	37.2	27.0	10.8	13.5	4.1	7.4
12	K5 (ICE)	28494	42.0	21.5	12.0	15.2	2.4	6.8
13	쏘나타 (ICE)	27705	40.3	24.6	11.9	14.7	2.8	5.8
14	투싼 하이브리드 (HEV)	25305	35.5	32.1	9.5	13.0	2.8	7.0
15	스타리아 (ICE)	23323	44.6	19.4	8.7	9.9	2.9	14.4
16	EV3 (EV)	21257	43.4	21.6	11.0	10.6	1.8	11.6
17	코나 (ICE)	20662	39.3	27.9	13.1	11.1	4.2	4.4
18	K8 (HEV)	17350	37.0	21.5	10.6	14.8	1.6	14.7
19	싼타페 (ICE)	14995	42.2	26.8	10.6	9.0	2.6	8.8
20	아반떼 (HEV)	14288	33.9	21.6	7.7	25.5	1.8	9.4
21	아이오닉5 (EV)	14001	32.6	33.7	11.9	13.3	1.9	6.7
22	포터 하이내장탑차 (ICE)	12930	47.9	20.6	10.3	7.5	3.1	10.6
23	트렉스 1.2 터보 (ICE)	12916	49.9	24.1	13.8	8.4	2.3	1.6
24	펠리세이드 (ICE)	12385	41.8	27.6	10.9	8.9	2.8	8.0
25	볼고III 1톤 (ICE)	12171	46.1	19.0	12.2	14.5	2.3	5.9
26	메뉴 (ICE)	11724	34.3	27.0	13.5	13.0	5.7	6.6
27	볼고III 하이내장차 (ICE)	11401	52.4	16.4	9.2	9.3	1.9	10.8
28	K8 (ICE)	10842	35.6	24.9	12.1	15.3	2.0	10.2
29	펠리세이드 (ICE)	10560	42.2	26.6	10.0	11.1	2.5	7.6
30	레이 EV (EV)	9605	36.5	26.1	12.5	13.8	1.9	9.3

* 무늬는 해당 지역 Top 3 비중을 의미

<표 5>는 2025년 지역별 수입 신차 판매비중을 제시한다. 지역별 판매 비중을 기준으로 보면 수입차 시장 역시 뚜렷한 지역적 특성이 관찰된다. 수도권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중심의 수요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BMW X1 xDrive20i가 수도권 판매 비중 41.2%를 기록하며 대표적인 강세 모델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동화 모델이 수도권 판매를 주도하는 구조다.

영남권은 하이브리드 모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와 BMW 5시리즈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50% 내외의 높은 지역 집중도를 보였다. 이는 국산 신차 시장과 유사하게, 중대형 세단 및 SUV 중심의 안정적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충청과 호남 역시 하이브리드 차량의 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익스플로러 2.3L AWD가 두 지역에서 각각 7.5%와 7.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인 점이 특징적이다.

제주도에서는 전기차의 지역 집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테슬라 Model Y와 Model 3 계열은 제주 지역 판매 비중이 35~45% 수준에 이르러, 다른 지역 대비 현저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제주도의 전기차 친화적 환경과 차량 운용 특성이 수입 전기차 수요를 집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수입 신차 Top 30 지역별 판매비중

순위	모델	전국 대수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강원	제주
1	Model Y RWD (EV)	37929	12.2	48.1	1.0	0.7	0.2	37.9
2	쏘나타(SONATA) (ICE)	16711	56.0	23.4	9.5	7.1	2.7	1.4
3	Mercedes-Benz E 200 (HEV)	15588	31.0	52.0	6.6	5.8	2.2	2.5
4	BMW 520i (HEV)	14580	34.9	55.1	1.5	6.0	1.1	1.4
5	Model Y Long Range (EV)	12475	13.9	49.4	0.8	1.0	0.2	34.7
6	Mercedes-Benz E 300 4MATIC (HEV)	9644	29.5	54.0	5.5	6.5	1.9	2.6
7	렉서스 ES300h (HEV)	6851	27.2	58.0	4.7	6.9	2.1	1.1
8	Model 3 RWD (EV)	6812	7.0	46.5	0.7	0.4	0.3	45.1
9	BMW X3 20 xDrive (HEV)	5540	37.5	52.5	1.1	6.8	1.0	1.1
10	BMW 530i xDrive (HEV)	5532	35.0	54.6	0.8	7.4	1.1	1.1
11	볼보 XC60B5 AWD (HEV)	4848	39.3	44.5	4.1	7.3	2.7	2.1
12	BMW 320i (HEV)	4814	39.9	53.3	0.7	4.2	0.6	1.2
13	Mercedes-Benz GLC 300 4MATIC Coupe (HEV)	3650	30.4	52.7	5.8	5.9	2.5	2.7
14	BMW X7 xDrive40i (HEV)	3435	34.9	56.8	0.8	5.5	0.9	1.1
15	BMW X4 xDrive20i (ICE)	3369	37.2	53.5	1.4	5.2	1.0	1.7
16	BYD ATTO3 (EV)	3128	40.5	43.2	7.0	4.7	1.9	2.6
17	Mercedes-Benz GLE 450 4MATIC (HEV)	3032	30.9	53.6	4.4	6.4	1.9	2.8
18	BMW X5 xDrive40i (HEV)	3030	37.5	54.7	1.0	5.0	0.7	1.1
19	Mercedes-Benz GLC300 4MATIC (HEV)	3029	30.5	52.9	5.4	6.2	1.7	3.3
20	BMW 740i xDrive (HEV)	3025	32.8	55.7	0.8	8.4	1.0	1.3
21	렉서스 NX350h (HEV)	3004	30.0	55.7	4.3	5.8	2.2	2.1
22	볼보 XC40B4 AWD (HEV)	2849	35.6	48.1	3.5	6.9	3.1	2.8
23	BMW X6 xDrive40i M Sport (HEV)	2766	33.5	57.2	1.0	5.8	0.8	1.6
24	BYD SEALION 7 (EV)	2663	34.7	45.5	6.4	7.1	3.2	3.1
25	Mercedes-Benz C 200 (HEV)	2575	29.9	53.3	5.7	5.6	2.0	3.4
26	Q4 45 e-tron (EV)	2472	47.0	35.2	7.8	6.9	2.5	0.6
27	Explorer 2.3L AWD (ICE)	2457	34.6	44.5	7.5	7.4	4.1	1.8
28	토요타 CAMRY (HEV)	2319	48.9	36.7	6.3	7.2	0.0	0.9
29	BMW X1 xDrive20i (ICE)	2114	41.2	50.7	1.0	4.6	1.5	0.9
30	Model 3 Long Range (EV)	1809	9.1	48.1	0.9	0.8	0.2	40.9

* 쏘나타 (ICE)는 분석에서 제외함

<표 6>은 2025년 지역별 국산 중고차 판매 비중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중고차 시장은 신차 시장보다 지역 간 편차가 완만하지만, 차급과 용도에 따라 지역별 선호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관찰된다. 수도권은 대부분의 주요 모델에서 50% 내외의 안정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며, 중고차 거래의 중심지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그랜저, 아반떼, 쏘나타 등 중형·준대형 승용차뿐 아니라 SUV와 상용차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자가용 중심의 보유 수요와 함께 상대적으로 장거리 운행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동시에 포터II, 포터 내장탑차 등 상용차의 비중도 높아, 영업용·생계형 수요가 병존하는 구조를 보인다.

충청과 호남 지역으로 갈수록 소형 트럭과 상용차에 대한 선호가 더욱 뚜렷해진다. 포터II와 봉고III 계열은 두 지역 모두에서 13~15%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중형 승용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농업·자영업 비중이 높은 지역 경제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중대형 세단과 고급차의 비중은 수도권과 영남권 대비 낮게 나타났다.

강원과 제주 지역에서는 특정 모델이 뚜렷한 우위를 보이기도는, 전반적으로 분산된 판매 구조가 나타난다. 두 지역 모두 전체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관광·임대·단기 운용 수요가 혼재되어 있어 특정 차종이나 차급이 시장을 주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제주 지역에서는 일부 대형 세단과 SUV의 비중이 소폭 높게 나타나, 렌터카 및 법인 수요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2025년 한국 자동차시장 거래 동향

<표 6> 국산 중고차 Top 30 지역별 판매비중

순위	모델	전국 대수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강원	제주
1	그랜저 (ICE)	176413	49.5	26.6	10.6	10.3	1.4	1.5
2	아반떼 (ICE)	160677	46.5	27.1	12.1	10.4	2.1	1.7
3	쏘나타 (ICE)	132547	46.7	26.5	12.1	11.5	1.8	1.5
4	포터II (ICE)	122441	37.1	31.4	12.9	14.0	3.1	1.5
5	싼타페 (ICE)	94342	48.2	27.4	10.4	10.1	2.0	2.0
6	K5 (ICE)	87878	51.6	22.0	11.5	11.5	1.6	1.8
7	G80 (ICE)	71397	51.8	28.7	7.8	8.3	0.8	2.6
8	그랜드 스타렉스 (ICE)	67769	52.0	24.1	11.2	9.2	2.0	1.4
9	투싼 (ICE)	64134	49.3	26.5	10.5	9.2	2.4	2.1
10	스파크 1.0 DOHC (ICE)	63174	43.7	27.4	15.2	8.4	3.6	1.8
11	K3 (ICE)	57346	50.9	22.6	12.0	10.7	2.1	1.7
12	K7 (ICE)	54500	50.3	24.4	11.0	11.5	1.5	1.3
13	몽고III 1톤 (ICE)	52605	45.2	22.3	13.2	14.6	2.7	2.0
14	스파크 1.0 (ICE)	47897	52.8	24.7	11.9	6.5	2.8	1.3
15	펠리세이드 (ICE)	46394	56.2	26.0	7.1	7.4	1.0	2.4
16	QM6 (ICE)	37068	56.7	22.9	9.5	8.5	1.6	0.8
17	포터 내장탑차 (ICE)	34236	54.2	21.6	10.4	10.5	2.4	0.9
18	몽고III 플러스네장차 (ICE)	31676	53.2	20.5	11.2	11.7	2.3	1.2
19	제네시스 (ICE)	30198	47.5	30.6	10.1	9.4	1.8	0.6
20	그랜저 (HEV)	29857	53.6	27.9	7.7	7.8	0.8	2.3
21	SM5 (ICE)	29759	49.5	27.7	11.4	8.0	2.3	1.1
22	SM3 (ICE)	29745	45.5	27.3	13.6	9.4	2.7	1.4
23	GV80 (ICE)	28361	53.4	28.1	5.9	7.0	0.7	4.9
24	SM6 (ICE)	27872	53.5	25.0	10.3	8.7	1.9	0.6
25	캐스퍼 (ICE)	25533	58.6	23.1	9.1	6.2	1.5	1.5
26	코나 (ICE)	21254	48.7	27.9	10.2	9.2	2.1	1.9
27	트렉스 1.4 (ICE)	20615	56.2	22.6	10.9	6.7	2.0	1.6
28	K9 (ICE)	18849	53.6	25.0	8.5	10.4	0.8	1.7
29	GV70 (ICE)	18740	58.2	27.3	5.9	5.8	0.6	2.2
30	G90 (ICE)	17025	54.3	25.9	6.9	7.9	0.4	4.5

<표 7> 수입 중고차 Top 30 지역별 판매비중

순위	모델	전국 대수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강원	제주
1	QM3 (ICE)	13974	46.0	28.2	12.3	8.9	3.2	1.4
2	BMW 520d (ICE)	11504	57.5	27.3	7.2	6.9	0.7	0.4
3	E300 (ICE)	8104	62.6	25.0	5.7	4.9	0.9	1.0
4	Model 3 Long Range (EV)	6805	66.1	24.6	4.4	2.7	0.6	1.6
5	BMW 320d (ICE)	6770	63.5	22.8	7.6	4.5	0.9	0.6
6	렉서스 ES300h (HEV)	6664	61.9	27.9	4.6	3.9	0.6	1.0
7	Mercedes-Benz E250 (ICE)	5899	59.5	29.4	4.9	4.2	0.5	1.5
8	BMW 320i (ICE)	5800	71.7	18.7	4.8	3.4	0.7	0.7
9	BMW 520i (ICE)	5126	67.5	20.7	4.8	5.8	0.4	0.8
10	E300 4Matic (ICE)	5110	61.5	22.8	6.3	7.5	0.7	1.3
11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ICE)	4712	67.7	18.9	6.3	4.9	1.3	0.9
12	BMW 520d xDrive (ICE)	4568	64.2	18.7	6.4	9.3	1.0	0.5
13	E220 d (ICE)	4415	58.4	28.4	6.0	5.3	0.7	1.2
14	BMW 528i (ICE)	4377	62.0	23.5	8.1	5.0	0.9	0.5
15	MINI Cooper (ICE)	4246	67.6	19.2	7.5	4.1	0.8	0.8
16	BMW 530i (ICE)	4000	66.4	24.8	4.0	3.9	0.3	0.7
17	Mercedes-Benz E350 4MATIC (HEV)	3641	61.7	25.4	5.2	5.4	0.8	1.6
18	Explorer 2.3 AWD (ICE)	3576	69.9	16.2	7.2	4.4	1.8	0.5
19	CHEVROLET COLORADO AWD (ICE)	3480	64.9	15.5	9.1	7.6	1.8	1.1
20	BMW 118d (ICE)	3346	69.2	20.7	5.0	3.6	0.9	0.7
21	Model Y Long Range (EV)	3302	67.1	23.7	3.9	2.3	0.7	2.4
22	BMW 530i xDrive (ICE)	3082	69.7	16.7	4.3	7.8	0.8	0.6
23	A6 40 TDI (ICE)	3039	68.0	19.2	5.6	4.9	0.8	1.5
24	MINI Cooper five-door (ICE)	2969	71.5	18.9	4.5	3.6	0.7	0.8
25	A6 45 TFSI quattro (ICE)	2804	68.3	18.0	5.1	6.0	0.7	1.9
26	MINI Cooper Clubman (ICE)	2525	70.5	18.3	5.1	4.2	1.0	0.8
27	BMW X4 xDrive20i (ICE)	2516	73.0	18.5	3.5	3.8	0.4	0.9
28	CHEVROLET BOLT EV (EV)	2473	61.9	21.3	9.5	4.3	1.1	2.0
29	Model Y RWD (EV)	2469	73.1	16.2	5.4	3.6	0.8	0.9
30	Tiguan 2.0 TDI (ICE)	2449	66.5	18.7	6.4	4.8	1.2	2.4

<표 7>은 2025년 지역별 수입 중고차 Top 30 모델의 판매 비중을 나타낸다. 수입 중고차 시장은 국산 중고차보다 지역 편중이 뚜렷하며, 수도권 집중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BMW 5시리즈, 벤츠 E-클래스, BMW 3시리즈 등 주요 독일 세단 모델들은 대부분 수도권 비중이 60~70% 수준에 이르러, 수입 중고차 거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남권은 수도권 다음으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BMW 520d, E300, 렉서스 ES300h 등 중대형 세단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영남권 비중은 대체로 20% 중후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 자가용 중심의 수입 중고차 수요가 일정 규모 이상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충청과 호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지만, BMW 520d xDrive, 쉐보레 콜로라도 등 일부 SUV-픽업 계열 모델에서는 7~10% 내외의 점유율이 관찰되어 용도 기반 수요가 제한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전기차의 경우 지역 집중도가 더욱 뚜렷하다. Model 3 Long Range와 Model Y 계열은 수도권 비중이 65~73% 수준으로, 수입 전기 중고차 거래가 사실상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충전 인프라 접근성, 잔존가치 정보의 축적, 그리고 법인·리스·렌터카 물량이 수도권을 거점으로 재유통되는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강원과 제주 지역에서는 전체 거래 규모가 작아 특정 모델이 뚜렷한 우위를 보이지 않으며, 제주 지역의 경우 일부 전기차 모델에서만 제한적인 비중 상승이 관찰된다.

03.

산업 전체 거래동향 개요

Top 30 베스트 셀러 모델

▶ 3. 연식별/주행거리별 중고차 거래동향

연식별 수출 동향

연식별 폐차 동향

경매 시장 동향

요약 및 시사점

3. 연식별/주행거리별 중고차 거래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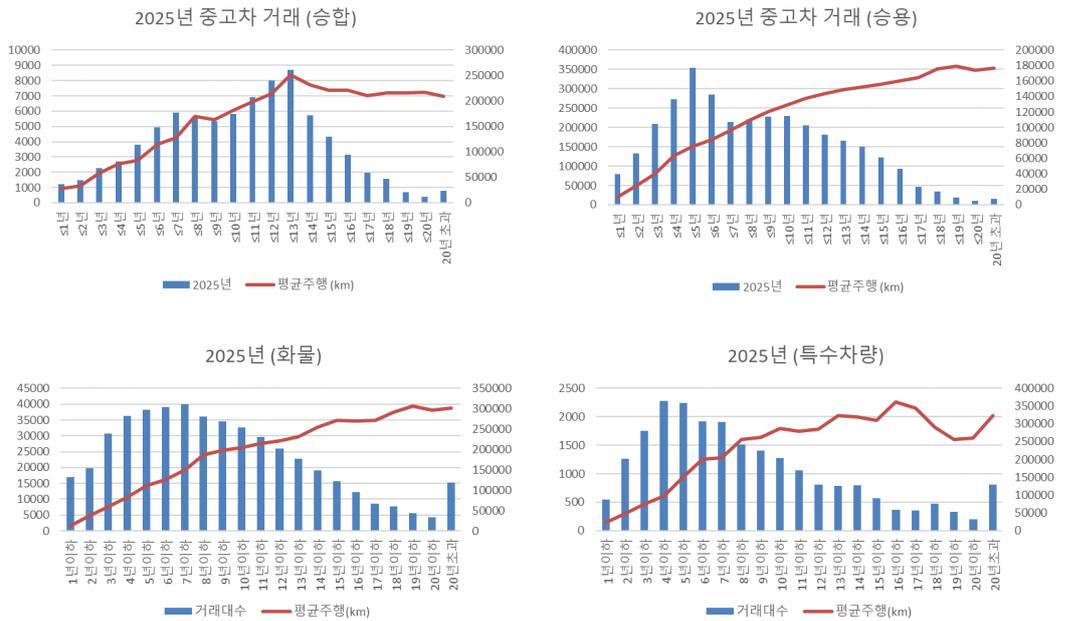
<그림 1>은 2025년 거래된 중고차를 승용, 승합, 특수차량, 화물차로 구분하여, 각 차종별 연식 분포와 주행거리 패턴을 함께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승용 중고차의 경우, 4~6년차 차량의 거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범위를 확장해 보면 3~6년차와 7~13년차 구간에 거래가 집중되는 이봉(bi-modal) 분포가 관찰된다. 주행거리는 연식이 증가함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는 제곱근 형태의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며,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간 주행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는 전형적인 개인용 차량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승합 중고차는 승용차와는 뚜렷이 다른 분포 특성을 보인다. 거래는 연식 11~13년차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7~8년차 구간에서도 상당한 거래가 관찰되면서 결과적으로 두 개의 봉우리를 형성하는 이봉 분포가 나타난다. 특히 평균 주행거리는 연식 13년차까지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단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승용차처럼 제곱근 형태로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패턴과 대비되며, 승합차가 약 13년차까지는 지속적으로 영업에 투입되다가,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행거리를 유지하는 단계로 전환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특성은 승합차가 운행 강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잔존가치 예측과 라이프사이클 분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수차량은 상용차임에도 불구하고 연식 분포 측면에서는 승합차보다 승용차에 가까운 패턴을 보인다. 거래는 4~5년차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고연식 차량에서도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오른쪽 꼬리가 두터운 분포를 형성한다. 다만 16년차 이상 차량에서 평균 주행거리가 오히려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특수차량 역시 승합차와 유사하게 운행 강도가 상이한 두 개의 이질적 그룹이 공존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화물차는 분석 대상 네 개 부문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연식 분포를 보여준다. 거래 비중은 5~6년차까지 매끄럽게 증가한 뒤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두터운 오른쪽 꼬리를 가진 단봉형 분포를 형성한다. 20년 초과 연식 구간에서 관찰되는 스파이크는 20년 이상 된 차량도 일정 규모로 지속 거래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분석 구간을 30년 이상으로 확장할 경우 전체 분포는 보다 매끄러운 단조 감소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해당 부분은 향후 화물차를 대상으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그림 1> 2025년 연식별 중고차 거래대수 및 주행거리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보처

04.

산업 전체 거래동향 개요

Top 30 베스트 셀러 모델

연식별/주행거리별
중고차 거래동향

▶ 4. 연식별 수출 동향

연식별 폐차 동향

경매 시장 동향

요약 및 시사점

4. 연식별 수출 동향

화물차는 분석 대상 네 개 부문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연식 분포를 보여준다. 거래 비중은 5~6년차까지 매끄럽게 증가한 뒤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두터운 오른쪽 꼬리를 가진 단봉형 분포를 형성한다. 20년 초과 연식 구간에서 관찰되는 스파이크는 20년 이상 된 차량도 일정 규모로 지속 거래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분석 구간을 30년 이상으로 확장할 경우 전체 분포는 보다 매끄러운 단조 감소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해당 부분은 향후 화물차를 대상으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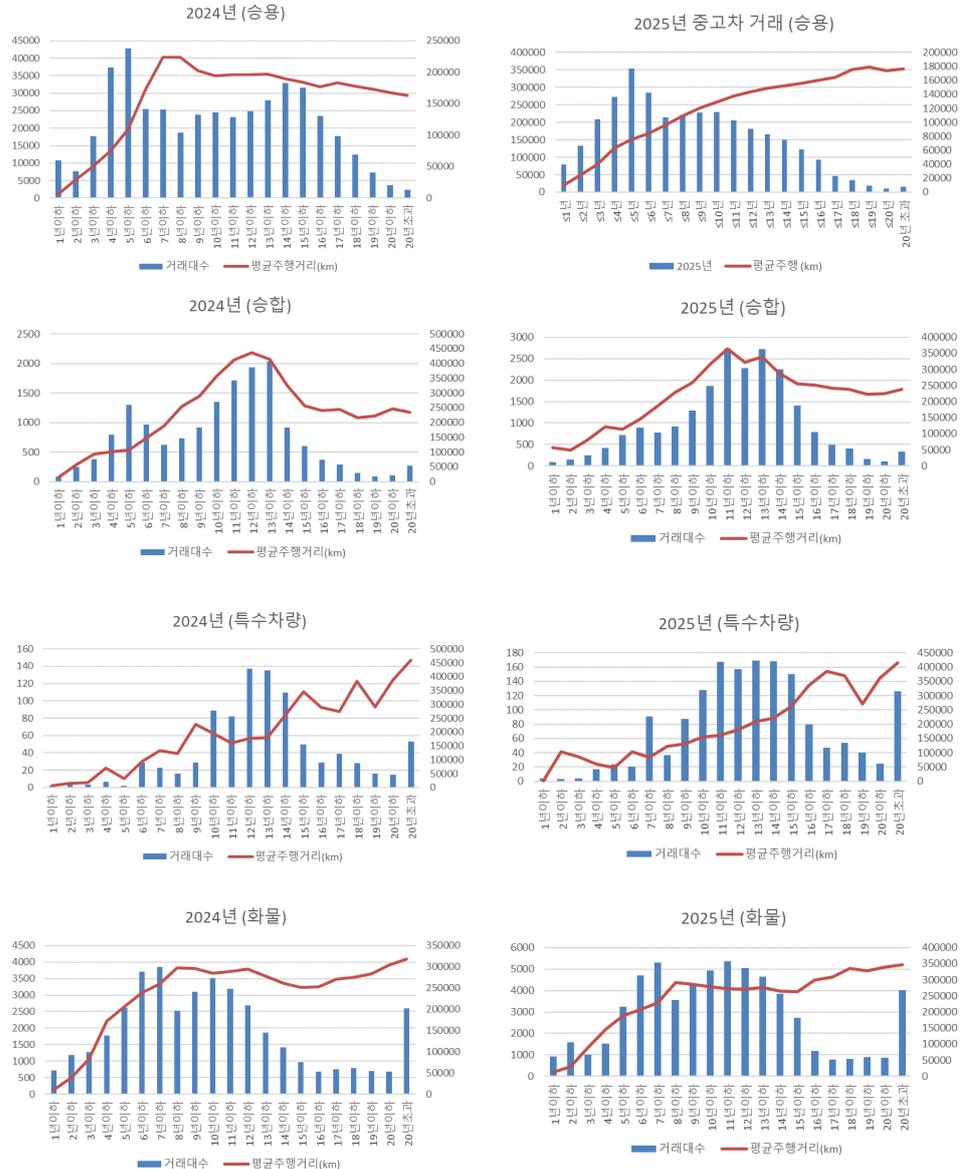
<그림 2>는 승용, 승합, 특수, 화물차에 대해 2024년과 2025년 수출 차량의 연식별 분포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다. 전년 대비 44.1% 증가한 승용차의 경우, 두 연도 간 연식 분포에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특정 연식대의 변화보다는 기존 수출 시장 전반에서 물량이 고르게 확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화물차 역시 2025년에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식별 분포는 2024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기존 거래선에서의 전반적인 수요 확대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 한국 자동차시장 거래 동향

반면 승합차와 특수차량에서는 연식 분포의 변화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난다. 승합차는 2025년에 21,048대가 수출되며 전년 대비 32.7% 증가했는데, 특히 11~14년차 차량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기존 수출 시장의 견조한 수요에 더해 신규 거래선 개척 효과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특수차량은 절대 물량은 1,598대로 크지 않으나, 전년 대비 78.1% 성장하며 연식 분포 자체가 눈에 띄게 변화하였다. 10~15년차 차량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형성된 지역이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확대된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면, 두 연도 간 연식 분포가 유사한 승용차와 화물차의 수출 증가는 원화 약세와 같은 거시적·외생적 요인에 따른 전반적 수출 여건 개선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연식 분포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난 승합차와 특수차량의 경우, 이러한 거시경제 요인에 더해 신시장 개척이나 기존 시장 내 신규 바이어 발굴 등의 미시적 요인이 추가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수출 구조와 분석은 향후 별도의 테마 보고서를 통해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림 2> 2024/2025년 연식별 수출 대수 및 주행거리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보처

05.

- 산업 전체 거래동향개요
- Top 30 베스트 셀러 모델
- 연식별/주행거리별 중고차 거래동향
- 연식별 수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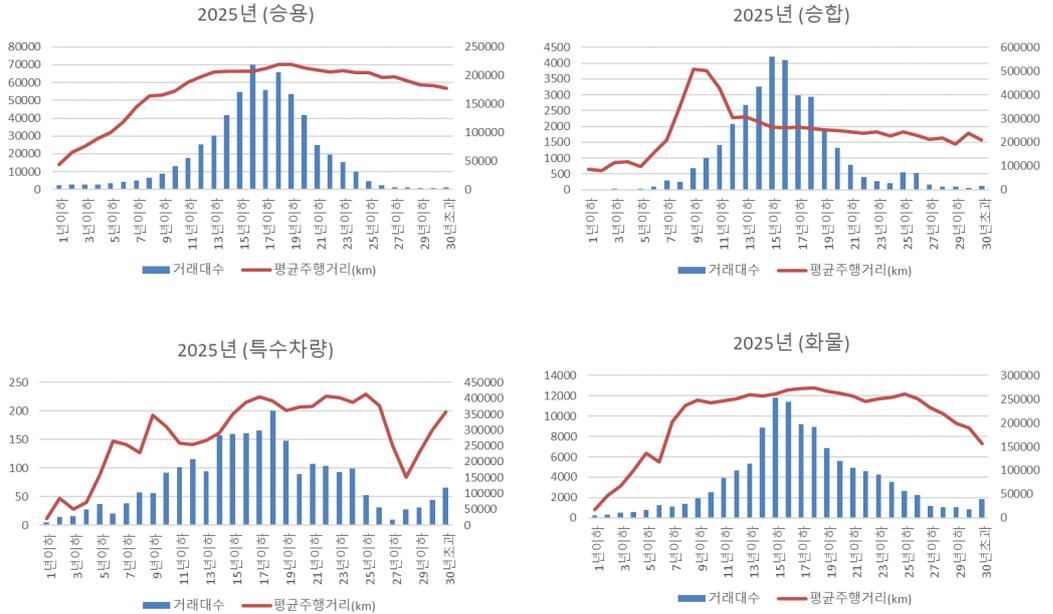
▶ 5. 연식별 폐차동향

- 경매 시장 동향
- 요약 및 시사점

5. 연식별 폐차 동향

국도교통부에서 용도상 수출용 말소로 구분된 차량 외에는, 대폐차, 도난, 멸실, 연구시험, 편취, 횡령, 천재지변, 면허취소, 운행정지, 부정등록 등 다양한 사유가 있으나 본 보고서에는 편의상 “수출예정”으로 말소한 차량을 제외한 전체를 폐차로 구분하였다.

<그림 3> 연식별 폐차분포 및 주행거리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보처

<그림 3>은 승용, 승합, 특수차량, 화물차 폐차 차량의 연식별 분포와 주행거리 패턴을 보여준다.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일 봉우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폐차 차량의 경우, 경제적 변수나 시장상황보다는 대체로 차량 자체의 물리적 상황에 따라 폐차가 이뤄짐을 추정할 수 있다. 특수차량은 용도별 사용 특징을 반영하듯 다양한 연식에서의 불규칙적인 폐차 패턴이 보인다.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부문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승용차는 연식에 상관없이 평균 20만 km가 폐차의 기준 Ceiling으로 자리매김한 양상이다. 승합차는 과도한 주행거리를 보인 차량은 10년 미만 운행하고도 50만km에 달하는 주행 후에 폐차하는 패턴을 보였고, 기타 승합차는 약 25만 km 안팎에서 폐차가 이뤄짐을 알 수 있다. 한편 특수차량과 화물차의 평균주행거리 ceiling은 각각 약 40만 km, 26km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폐차는 자동차가 생산-판매된 이후 여러 차례의 중고차 거래를 거쳐 도달하는 최종 단계라는 점에서, 차량 생애주기 전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소는 신차-중고차-폐차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패턴을 정형화함으로써 향후 경매 시장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06.

- 산업 전체 거래동향개요
- Top 30 베스트 셀러 모델
- 연식별/주행거리별 중고차 거래동향
- 연식별 수출 동향
- 연식별 폐차 동향

▶ 6. 경매 시장 동향

요약 및 시사점

6. 경매 시장 동향

<표 8>은 연도별 중고차 거래와 경매 출품대수, 그리고 경매 낙찰대수를 보여준다. 중고차 전체거래 중 매매상품용으로 거래된 중고차 거래가 경매출품대수와 좀 더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중고차 전체 거래 중 매매상품용 거래를 별도로 표기하였다. 국토부 기준에 의하면 중고차는 매매상품용 거래와 일반소유용 거래로 구분되는데, 일반 소유용 거래 중 중고차 거래업체가 위탁 거래한 건수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구분 불가능하여 제외하였다.

<표 8> 중고차 거래와 낙찰 대수

	중고차전체	매매상품용	경매출품대수	낙찰대수	낙찰율
2022	3,802,454	1,404,416	371,330	223,110	60.1%
2023	3,838,069	1,394,764	372,436	244,083	65.5%
2024	3,899,581	1,471,912	398,919	249,842	62.6%
2025	3,915,916	1,563,920	471,141	289,044	61.3%
증감율					
2023	0.94%	-0.69%	0.30%	9.40%	
2024	1.60%	5.53%	7.11%	2.36%	
2025	0.42%	6.25%	18.10%	15.69%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는 2025년에 전년 대비 6.25% 증가했고, 경매 출품 대수는 18.1% 늘었다. 그러나, 매매상품용 거래 증가가 경매출품대수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로 이어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2024년에는 매매상품용 거래가 5.53% 증가하는 동안 경매 출품 대수도 7.11% 증가해 유사한 흐름을 보였지만, 2023년에는 매매상품용 거래가 감소했음에도 경매 출품 대수는 0.3% 증가했다. 이처럼 연도별 흐름이 일관되지 않아 두 지표 간 특정한 상관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경매 낙찰율은 2023년에 65% 수준으로 높았던 시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60~62% 범위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 수준이 '경쟁력 있는 낙찰율'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1월 테마보고서에서는 경매시장의 거래 패턴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했으므로, 보다 심층적인 해석은 해당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07.

산업 전체 거래동향개요

Top 30 베스트 셀러 모델

연식별/주행거리별
중고차 거래동향

연식별 수출 동향

연식별 폐차 동향

경매 시장 동향

▶ 7. 요약 및 시사점

7. 요약 및 시사점

2025년 대한민국 자동차시장은 신차 회복, 수출 급증, 폐차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며 전반적인 거래 규모 확대보다는 거래 구조의 재편이 두드러진 해로 평가된다. 신차 거래는 2024년의 조정 국면을 벗어나 소폭 회복되었고, 중고차 거래는 정체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으나, 수출 물량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하며 전체 시장 흐름을 주도하였다. 그 결과 국내 차량 스톡은 감소 국면에서 벗어나 유지 또는 완만한 확장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차종 및 파워트레인 관점에서 보면, 신차 시장에서는 수입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성장을 견인한 반면, 국산 신차는 여전히 내연기관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고차 시장 역시 국산·수입을 불문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높게 유지되었으며, 전기차는 일부 수입 모델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존재감을 보였다. 수출 부문에서는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량 중심으로 믹스가 재편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조정 국면과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연식별 분석 결과, 중고차 거래는 차종별로 뚜렷이 상이한 생애주기 패턴을 보였다. 승용차와 승합차에서는 이봉(bi-modal) 분포가 관찰되어, 사용 강도가 다른 이질적 차량군이 공존함을 시사하였다. 반면 화물차는 비교적 안정적인 단봉형 분포를 유지하며, 장기 운용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거래가 지속되는 구조를 보였다. 수출 증가 역시 차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승용차와 화물차는 전반적 물량 확대가 주된 요인인 반면, 승합차와 특수차량은 특정 연식대 중심의 구조적 변화가 관찰되어 신규 시장 개척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폐차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연식 분포는 대체로 단봉형 구조를 유지하였다. 이는 폐차가 시장 상황보다는 차량의 물리적 한계와 운용 강도에 의해 결정되는 최종 단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마지막으로 경매 시장의 경우,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증가와 경매 출품·낙찰 간의 관계는 연도별로 일관되지 않아 단순한 인과관계로 해석하기 어렵다. 경매시장과 타 시장과의 상관관계는 1월 별도의 테마보고서에서 다뤘으니 관심있는 독자는 참조하기 바란다.

(자료) 본 보고서의 분석을 위한 Raw data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보험과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보처에서 제공했음

(사)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산하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

연구소장	부소장 (운영총괄)	수석 객원연구원
조성봉	김원태	고석빈